

‘핵심 키워드 AI’... 삼성·LG, 초개인화·친환경 전략 강화

IFA 2025, 독일 베를린 개막
삼성 초개인화 AI 홈 솔루션 공개
LG 유럽 맞춤형 가전 25종 선보
글로벌 무대 친환경·효율경쟁 가열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IFA 2025’가 5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올해 IFA는 인공지능(AI)을 핵심 축으로 인류가 꿈꿔온 미래의 일상을 현실화하는 스마트홈, 로보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친환경·고효율 등의 기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나흘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는 ‘미래를 상상하다’(Imagine the future)를 주제로 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쿠쿠전자, 바디프랜드 등 115개 업체가 참가한다. 중국은 TCL·하이센스·하이얼 등 ‘빅3’ 가전업체부터 에코백스·드리미·로보락 등 단일 국가 중 최대 규모인 700개사가 참가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전시회를 통해 AI 홈 생태계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AI홈, 미래 일상을 현실로’를 주제로, LG전자는 ‘LG AI 가전의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AI가전이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미래 스



오는 5일부터 9일(현지시간) ‘IFA 2025’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의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소개하고 있다.

마트홈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업계 최대 규모인 6235㎡(약 1886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삼성 AI 홈을 통한 사용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알아서 맞춰주는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 AI 홈은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안전까지 돌본다. 방문객들은 삼성 전시관에 펼쳐진 AI 홈을 통해 현실로 다가온 꿈꾸던 미래 일상을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약 3745㎡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고객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LG AI홈’ 솔루션과 유럽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

적화된 AI 가전 신제품 25종을 선보인다. 생성형 AI가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복합 명령어나 추상적 지시를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친환경’과 ‘고효율’도 올해 전시회의 키워드다. 올해 IFA에서는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유럽의 강화된 ‘에코디자인’ 지침을 어느 눈높이까지 맞추느냐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이 지침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내구성, 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요건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유럽 에너지 효율 세탁기 최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A등급)보다도 에너지 사용량을 65%나 추가

로 절감할 수 있는 세탁기를 선보인다. LG전자는 에너지 등급 A의 LG 히트 펌프 세탁건조기를 비롯한 ‘유럽 맞춤형’ 신제품 25종을 공개한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성장 속도도 주목해야 한다. 하이센스는 삼성전자가 공개하는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RGB TV에 맞선 ‘RGB 미니 LED TV’를 선보인다. TCL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AI 기반 가전제품과 최신 초대형 퀴드뷰(QD)-미니 LED TV, 증강현실(AR) 안경 등을 전시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로보락·에코백스·드리미 등 중국 로봇청소기 업체들도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전망이다.

유럽 현지 업체에서도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밀레는 무선 진공청소기, 냉장·냉동고, 인덕션, 후드 등 혁신적인 신제품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 홈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LG전자 HS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은 “IFA 2025는 유럽 생활가전 시장이 고효율 가전과 AI 홈 솔루션으로 재편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삶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LG AI 홈’ 솔루션과 유럽 고객들에게 꼭 맞는 제품들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항공

특별 기내식 새단장 최신 건강식단 반영

대한항공이 최신 건강 트렌드와 승객 의견 등을 반영한 특별 기내식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식사 조절식 메뉴 7종을 리뉴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내식은 올해 2월 인하대병원 영양팀과 6개월간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당뇨, 심혈관질환, 고혈압 등 주요 질환의 최신 임상 진료 지침을 적용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

또 대중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저속 노화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 대쉬(DASH) 식단 등 최신 건강식 트렌드를 식사 조절식에 반영했다. 영양 뿐만 아니라 맛 품질도 향상했으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강화했다.

대한항공은 건강상 이유로 맞춤 식단이 필요한 승객에게 의학 및 영양학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식사 조절식을 특별 기내식으로 제공한다.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 탑승객 모두 이용 가능하며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와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캐스퍼 EV 앞세워 일본서 상승기류

1~8월 판매 648대, 작년치 돌파
인스터 크로스 출시로 성장세

현대자동차가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을 확대하며 의미있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은 자국 완성차기업 판매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수입차 브랜드의 진입장벽이 높은 지역이다.

4일 일본자동차수입조합(JAIA)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1~8월 일본에서 총 648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전

체 판매량(618대)보다 많은 수치다. 현대차가 올해 일본에 출시한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 현지 브랜드를 제외하고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 BYD(2024년 2223대 판매)에 대한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10일 일본에서 인스터에 이웃되어 감성을 더한 ‘인스터 크로스’를 출시하고 판매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5월 준중형 전

기 스포츠실용차(SUV) 아이오닉 5 등을 필두로 일본 승용차 시장에 재진출했다. 달려 없는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며 일본 시장 재공략에 나선 것이다.

특히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서 고객과의 접점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일본에서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현대차 오사카 CXC를 시작으로 센다이와 후쿠오카에 쇼룸을 열었다. 연말까지 도쿄, 사이타마 등으로 오프라인 전시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여기에 현대차는 일본 지역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의 브론즈 스폰서로 참여해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타운 3대를 협찬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아프리카 사업 총괄 안보·경제 파트너십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안보·경제 협력 확대를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총괄법인(RHQ) 개소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성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아프리카 총괄 사장을 비롯한 한화 방산 계열사 주요 임원진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문병준 주 사우디 대한민국 대사대리, 아흐마드 압둘아지즈 알 오할리 사우디 군수산업청장 등 양국 정부·방산업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설립한 총괄법인은 사우디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의 기존 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사우디의 ‘비전 2030’과 연계해 사우디 군 현대화 사업과 현지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 안보와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한화 방산 3사의 육·해·공 우주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으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적극 공략한다.

성일 총괄 사장은 “총괄법인 출범은 한화그룹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HD현대, 안전 최우선 경영 다짐

정기선 부회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HD현대 경영진이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다짐했다.

HD현대는 전 계열사가 일제히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각 사 대표이사 주관으로 이뤄졌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전남 영암에 위치한 HD현대삼호 조선소 현장을 찾아 김재를 HD현대삼호 사장과 함께 주요 설비와 고위험 작업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HD현대삼호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팀장들을 만나 간담회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4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아 주요 생산 설비와 고위험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 /HD현대

를 가졌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인터, 中 中企 해외진출 지원 성과 공유

‘2025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4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시장개척단’의 3년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워크숍: 시장개척단 Re-Connect Day’에는 중소기업 14개사와 협력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개척단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100여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표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해외 지사와 법인이 직접 현지 시장조사와 제품 실증을 지원한다. 계약 협상과 정에도 참여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22년 프로그램을 본격화한 이후 70여 개 중소기업과 570여 개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1200여 건의 상담을 주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총 14회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으며 활발한 비즈니스 협의를 통해 다수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